

중진작가 6인이 펼쳐내는 내면 속 이야기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展…내년 3월1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외형, 그 너머의 풍경을 들여다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3월19일까지 본관 제 5.6 전시실에서 2022 중진작가 초대전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진 작가 강운, 김유섭, 박은수, 이승하, 서정민, 정광희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에 선보이는 여섯 작가의 근작들은 비재현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각자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내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김유섭 작품 ‘빛의 존재’는 검은색에 가려 보이지

않던 화려한 원색들을 통해 회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예견을 담은 작품 ‘인류세’는 새로운 시대를 생각해보게 한다.

박은수 작품은 기하학 형상과 작가만의 색을 입힌 종이 부조 조각들로 이뤄진 도시 풍경화다. 작가는 캔버스 위 분해한 폐신문지를 얇게 쌓고 요철을 만들어 원하는 조형이 될 때까지 깎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반복한다. 작품 ‘삶의 표정, 아우라’는 개인이 가진 독특한 분

위기 아우라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하는 실재하는 비정형 이미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 의식과 무의식, 생성과 소멸의 경계를 이야기한다. ‘무제의 공간’ 시리즈는 먹물이 섞이는 과정을 포착한 두 편의 영상이다. 시간·공간·환경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 먹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상을 통해 낯설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무의식에 도달한 것 같은 신비함을 경험한다.

강운·김유섭·박은수·이승하·서정민·정광희 작가

개인·시대·미래에 대한 풍경 담은 40여 작품 선포

강운은 구름, 마음 등의 변화를 관찰해 화면에 담는다. ‘마음산책’ 시리즈 작품은 개인의 상처 그리고 5·18, 코로나19 등 시대의 큰 사건에서 세대가 겪어왔던 상처와 이것들의 치유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작가가 오랜 시간 실천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전하고 있어 작품과 관객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한다.

정광희는 독특한 시선으로 수목 추상 작업을 한다. ‘자성의 길’은 한지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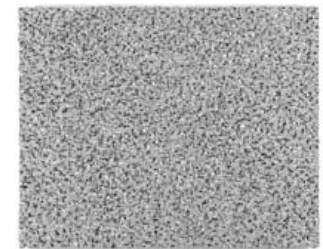
먹, 젓가락을 사용한 작품이다. 각각 다르게 먹이 묻든 한지의 모습은 살아 있는 붓의 움직임과 같다. ‘나를 굶는다’는 한지 위에 한 일자를 그으며 각자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참여 관람객은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다.

서정민은 한지로 만든 선(線)을 캔버스 위에 조형화해 노자의 무위(無爲) 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한지를 동그랗게 말고, 자르고, 일정한

크기로 토막 내 선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 과정은 작가에게 이치를 찾기 위한 자기 수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작인 ‘선’은

조금씩 선을 떨어내고 비우는 작업으로, 본인이 세운 선의 의미인 ‘무위의 철학’에 접근하고자 한다.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는 호남화단에서 비재현적 경향의 작품으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펼쳐온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작업에 몰두하며 실천적 차원에서의 수행과정을 거친 6명의 중진 작가 작품을 관람하면서 보이지 않는 풍경의 울림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시립미술관은 내년 3월19일까지 본관 제 5.6 전시실에서 2022 중진작가초대전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을 개최한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김유섭작 ‘인류세’, 강운작 ‘마음산책’ 시리즈, 박은수작 ‘삶의 표정, 아우라’.

ACC ‘호모 루피엔스’

유통 성과 풍성

해외서 잇단 ‘러브콜’



‘무용인의 밤’시 안무가상 등 수상
시애틀 국제 무용축제 등 초청도

ACC 창제작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가 한국현대무용협회 안무가 상과 무용수 상 수상에 이어 각종 해외 무용 축제에 잇따라 초청받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풍성한 유통 성과를 내고 있다.

무용극 ‘호모 루피엔스’의 김경신 안무가와 양승관 무용수는 지난 22일 (사)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현대 무용인의 밤’ 시상식에서 각각 안무가 상과 무용수 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호모 루피엔스’ 작품을 통해

컨템포러리 댄스의 다양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작품은 지난 11월 프랑스와 헝가리 등 유럽 초청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최근 시애틀 국제 댄스 페스티벌(SIDF)에도 초청받아 2023년 6월 미국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호모 루피엔스’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유희성에 초점을 맞춰 미래 인간의 자화상을 그려낸 무용극으로, 안무가 김경신의 인간 본성 탐구 3부작 호모(HOMO) 연속물의 마지막 신작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ACC 창·제작 무용극으로 쇼

케이스를 선보인 ‘호모 루피엔스’는 이례적으로 본 공연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 국제무용제와 프랑스 슈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기도 했다.

올해 9월 고양 국제무용제에 이어 11월 프랑스 파리 르 가르드 시흥 무용축제와 헝가리 베를렌 스퀘어 시어터 국제무용축제 등에도 초청받아 공연 관객들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호모 루피엔스’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초청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ACC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온오프라인서 조명한 ‘광주’의 현주소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사업단 ‘로스트 토포필리아’展

‘지역’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청년세대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지역성’의 현주소를 조명한 전시가 펼쳐진다.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사업단은 내년 1월17일까지 대안예술공간 산수짜리(광주 동구 충장로 46번길 8-8)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기획전 ‘로스트 토포필리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대동문화재단이 주관 수행하는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으로 광주를 기록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의 ‘무장소성(Placelessness)’ 이론을 중점적으로 차용한다. 존재의 근원적 중심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장소(지역)’에 대한 애착과 진정성을 상실한



메타버스 플랫폼 월드 내 구현된 ‘스토리파크’ 전시관. <대동문화재단 제공>

무장소성의 시대,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총 10인의 작가들은 ‘광주광역시’를 진정한 장소로 바라보기 위한 동시대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 이번 전시는 온라인(메타버스 플랫폼 월드)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내년 5월17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총괄 기획을 맡은 김민지 산수짜리 대표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이중적 접근을 통해 전시의 기초개념을 이루는 장소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광주전남 수목장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장묘 추세는?

봉분, 봉안(납골)

↓

자연장,수목장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수목장 전문업체입니다.

☎ 상담문의
062-464-3466
고민은 좋은 자리만 놓칠 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